

광주시교육청, '꿈을 실은 독서열차' 프로그램 성료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제11회 꿈을 실은 독서 열차'가 고등학교생 64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파주출판단지에서 진행됐다. <사진>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독서 관련 활동은 물론 평화 통일 체험 등 알찬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 독서를 통해 자신의 꿈을 모색하기도 했다.

첫날 파주 출판단지를 찾은 학생들은 '지혜의 숲 방문', '출판사 탐방' 등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출판 현장을 경험했다. 이어 '10대를 위한 교양수업' 등 지정 도서를 중심으로 논제 추출, 찬반 의견 나누기 등 독서·토론 활동을 전개했다.

다음날에는 '자신의 책 표지 디자인하기', '소망 등 만들기' 등 출판단지 내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또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수업 1'의 저자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의 법의학 특강과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 간다'의 저자 임희정 아나운서의 강의로 열렸다.



마지막 날에는 분단의 아픔을 엿볼 수 있는 임진각을 방문, 북측 임진강 전방대와 갤러리 그리브스 전시관 등을 둘러봤다.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박철영 과장은 "앞

로도 광주시교육청은 실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 제13차 월례세미나 개최



광주평화통일정책포럼(위원장 기광서 조선대교수)은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제13차 월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통일된 독립민주정부 수립과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한 유엔의 전담기구인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해체과정에서 남북한의 경쟁과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 그 과정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합의와 시사점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김자준 교수(조선대 학술연구교수)는 자주적,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의 상호존중과 대화와 협력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서는 노영기(조선대)교수와 선봉규(전남대)박사가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치매극복관리사업 협약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이사장 은광석)은 지난 31일 광주시 광역치매센터 및 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와 효율적인 지역사회 치매극복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행동심리증상(폭력, 망상, 배회 등)·섬망증상 환자의 상시 발굴 체계를 만들고 지역 치매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은광석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치매관리사업의

전달체계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며 "공공의료서비스가 더욱 체계화되고 탄탄해져, 치매환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은 지난해 호남권역 최초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

호남대 사회봉사단 '하오츠'

양동건맥축제서 주먹밥 나눔



호남대학교 사랑나눔센터(센터장 이무형)의 사회봉사단 '하오츠'는 지난 29일 2023 양동건맥시장 양동건맥축제에서 사랑의 주먹밥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진>

외식조리학과(학과장 김영근) 학생으로 구성된 '하오츠'(지도교수 이무형)는 이번 행사에서 밥, 소금, 보리쌀이 들어간 80년대 주먹밥, 멸치와 애호박이 들어간 간장 주먹밥, 고기와 진미채가 들어간 고추장 주먹밥 등 3종과 시원하고 구수한 된장국을 준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김성진 Y-MART 회장·조법 나주점 대표, 동신대에 발전기금

Y-MART 김성진 회장과 조법 Y-식자재마트 나주점 대표가 동신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사진>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지난 27일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Y-MART 김성진 회장, 조법 Y-식자재마트 나주점 대표 발전기금 기부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 회장과 조 대표는 동신대 이주희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증서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학과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신대 이주희 총장은 "정직과 성실, 나눔의 기업정신과 사람이 먼저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Y-MART의 사회공헌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뛰어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아 옥이(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동행(재) 55 불면해도 괜찮아 4(재)	00 가슴이 뻥다(재)	15 금드라마 연인:더비기닝 30 주니오니아가(재) 45 팬티허어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울릉 헤리티지>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전국 TOP 10 가요쇼
0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만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꿀잼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02	00 KBS 뉴스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03	0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내 비밀친구 햄찌(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04	00 시사건건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0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재)	00 생촌계기 코드레드(재)	1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0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0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08	30 일일연속극 금이아 옥이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09	00 KBS 뉴스 9	50 가슴이 뻥다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0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55 더 라이브	00 심야괴담회	20 강심탈리
11	30 이슈 픽 쌤과 함께 스페셜	55 아이 러브 스포츠	20 100분토론	
12	00 사랑의 가족(재) 55 생활의 발견	20 세컨 하우스 2(재)	45 TV예술무대	00 열린예술무대 뒤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	17:25 만스터맨션(재)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그린조기 구조대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55 한글용사 아이아(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그와 블랙캣
07:00 빅블루	12:10 귀하신 몸	18:40 EBS 뉴스
07:15 하프와 친구들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돌레길
07:30 띠띠뽀 띠띠뽀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45 뽕뽕뽕 뽕뽕뽕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9:50 극한직업
08:00 당동당 유치원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출동! 슈퍼윙스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35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기린 여름 복달임 2부 바다를 채우는 슬비소리>
08:50 만스터맨션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05 고고디노 우리동네공룡	17:00 페퍼 피그	22:45 건축탐구 - 집
09:20 인간과 바다	17:10 오구오구 내 새끼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일(음 6월 15일 辛卯)

<p>36년생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다. 48년생 적절하게 처리해야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60년생 출중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자. 72년생 내세운다면 서로 맞출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84년생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96년생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행운의 숫자 : 14, 99</p>	<p>42년생 모서러 논해 봐야만 결론에 이를 것이다. 54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진력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라. 66년생 유사한 상황만 반복해서 계속될 뿐이지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 78년생 꽤 속상할 일이 생기겠으니 마음을 비우고 속편하게 생각하라. 90년생 과감하게 미련을 버려라. 02년생 큰 일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5, 56</p>
<p>37년생 일상에 충실하다 보면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다. 49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 61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변화가 대단히 크다. 73년생 막연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85년생 행동력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97년생 면밀하게 보살피며 위기를 넘기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1, 86</p>	<p>43년생 확산 일로에 놓이면서 폭발적인 동력을 띤다. 55년생 숨어있는 내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해결된다. 67년생 여러 가지가 함께 올 것이지 예리한 시각과 유연한 수용 능력으로 대처하자. 79년생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91년생 솔직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03년생 열심하면 한다 해서 능사는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1, 69</p>
<p>38년생 사소한 원인으로 차치하지 말라. 50년생 조짐이 보인다. 62년생 초기에 수습해야 뒤끝이 없다. 74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말에 따르면 하자. 86년생 여건의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86년생 활용한다면 가장 절실한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다. 98년생 보완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61</p>	<p>44년생 뜻을 굽히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때다. 56년생 성부의 향방을 좌우하는 분기점에 서라. 68년생 확산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내야 한다. 80년생 순탄한 하루지만 할 일은 태산같이 쌓여 있다. 92년생 활용만 잘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04년생 기쁨에 신경 쓰면 금상첨화이다. 행운의 숫자 : 09, 92</p>
<p>39년생 나가는 쉬우나 돌아오는 데는 더디게 될 것이다. 51년생 거친 풍광 위의 일엽편주에 비유할 만하다. 63년생 오해를 풀고 나면 불면이 해소되리라. 75년생 불청객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빼앗기겠다. 87년생 역마가 중중하니 몸이 돌아라도 부족할 판이다. 99년생 협력자를 자처하는 이를 주목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30, 77</p>	<p>45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랄 할 수 있다. 57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다 보면 길정을 부르게 된다. 69년생 뜻밖의 만남이 있으나 짧은 인연일 뿐이다. 81년생 유지에 무리함이 따르지 않도록 하자. 93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05년생 합리적이야 설득력을 갖는다. 행운의 숫자 : 42, 66</p>
<p>40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마땅하다. 52년생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애를 태웠던 고민거리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64년생 일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겠다. 76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답이 보인다. 88년생 서두르면 손해 보는 일이 많을 것이다. 00년생 요령을 보인다면 효과가 커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8, 76</p>	<p>34년생 흔들리지 않아야 성과를 본다. 46년생 상대의 태도에 좌우되지 말고 주체적으로 대응하라. 58년생 특별히 꼭 집어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느니라. 70년생 영육의 부침이 심하여 그 과정, 또한 굉장하다. 82년생 불완전했던 요소가 해소될 수도 있겠다. 94년생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다. 행운의 숫자 : 23, 75</p>
<p>41년생 죄는 지은 데로 가고 덕은 두은 데로 간다. 53년생 과단성 있는 집행이 중요하다. 65년생 상응하는 관계 속에서 돌출하는 성향에 주의해야 한다. 77년생 서로 입장을 맞추어 생각해 보자. 89년생 비바람이치고 있으니 활동을 자제해야 할 때다. 01년생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확인만 잘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행운의 숫자 : 40, 74</p>	<p>35년생 객관적으로 돌아켜 보아야 할 때다. 47년생 늦은 시간에는 겨우 가닥이 잡혔다. 59년생 급작스러운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당혹감을 면치 못할 것이다. 71년생 될 일은 과일의 이치이니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겠다. 83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95년생 옛일이 괴롭힘이나 큰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9, 60</p>